치솟는 물가에 터지는 갈등…곳곳 '아우성'

노사 갈등·생산 차질 등 후폭풍
"자잿값 올라도 하도급 단가 그대로"
골조 전문 52개사 단가 조정 요구
카캐리어 노동자·레미콘업계도
운송료·단가 인상 등 강력 촉구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2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폭등에 따른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원청사의 적정 단가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치솟는 물가(物價)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부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광주·전남지역의 노사간 갈등, 생산 차질이라는 후폭풍으로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호남·제주지역 골조공사 전문업체 52개사는 20일 일손을 내려놓고 광주로 몰려와 원청사를 상대로 계약 단가 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소속사로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계약단가 조정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당초 전국 회원사 190여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일부지역에선 원청사와 합의가 이뤄져 호남·제주 연합회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물가가 무섭게 올라 자재비가 70% 가까이 치솟았다. 자재가격은 올랐는데 하도급 단가는 그대로니, 매달 돌려막기로 적자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 철근콘크리트 업체는 당장 월급도 못주는데 원청사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계약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철콘업계가 줄도산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양록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장은 "도급 계약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재비가 올라 일할 수록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다 죽자는 식이 아니라면 원청사들이 하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담양 현대자동차 출고센터 앞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싣고 전국 각지로 배송하는 카캐리어 노동자의 운송료 인상 시위였다. 이들은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일을 하면 할 수록 손해가 난다"며 "기름값, 차량 할부값, 요소수값을 제하면 손에 남는 건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종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전남본부장은 "기름값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운송료는 12년 전 수준인 1대당 5만원꼴이고, 시외까지 운행하더라도 1대당 최대 8만원 수준"이라며 "현실성 있는 운송료 조정으로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레미콘업계도 국제유가·유연탄 가격 상승에 맞춰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들고 일어날 조짐이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은 지난 15일 기준, t당 185달러로 전년 대비 71.96% 증가했다.

광주·나주·장성·담양·화순 등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최근 각 건설현장에 레미콘 단가 20% 상당을 인상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로, 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체적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레미콘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2월 이후 지금까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레미콘업계 뿐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도로 포장업계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아스콘, 콘크리트 등 원자재 비용 20% 이상이 올라 고사 상태에 놓였고,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농가는 치솟는 사료값 때문에 입식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등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광주형일자리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도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상하이 봉쇄가 한 달여 간 이어진 탓에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지난 18일부터 공장이 멈춰선 것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생후 4개월 아들에 손찌검 아동학대 혐의 아빠 입건

5남매를 둔 30대 가장이 생후 4개월 된 막내 아들에게 손찌검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사는 A(37)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봉선동 자신의 집에서 지난 19일 밤 10시 20분께 막내아들 B군이 시끄럽게 칭얼댄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A씨는 아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이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진료를 맡은 의사는 실려 온 아이에게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토대로 20일 새벽 1시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당시 학원에 간 다른 자녀를 데리러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아빠가 범죄이력이나 동종범행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 아동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지속적으로 뇌출혈 현상이 있었다는 의사 소견도 있었다. 현재 수술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A씨 부부의 남은 4명의 자녀가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철근 파이프 사이에 끼여 광양서 하청 노동자 숨져

20일 오전 10시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율촌산업단지 내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A(53)씨가 3t짜리 철근 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졌다.

광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파이프를 1.5m 높이 선반에서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파이프 1개가 지게차에 고정되지 않고 선반 쪽으로 굴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몸으로 막으려다가 파이프 사이에 머리를 끼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파이프는 높이 10m, 지름 50㎝로 해상 풍력발전기 기둥 아래에 설치되는 지지대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장 업체에서 자재 출하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호수로 지게차 운행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장치 설치 여부, 현장 관리감독관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발생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내 사건 해결할 변호사 어디서?…'나의 변호사'에서 찾으세요

광주변호사회 서비스 개시

대한변호사협회가 개발한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klaw.or.kr)'가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20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만든 변호사정보 사이트다.

국민이 자기 사건에 적합한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와 업무사례를 제공한다. 변호사 회원들에게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의 변호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각 지방변호사회 검증을 거쳐 변호사 정보를 안내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 프로필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중개료·수수료·광고료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변호사와 일반인 모두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의뢰인은 '나의 변호사'에 등록된 2만 6000여 변호사 가운데 민사·형사·가사 등 본인에게 필요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지역별로 찾아 사건(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법률 자문·강연·집필·연구 등의 업무 의뢰도 가능하다. 다만 변호사 검색과 별개로 '변호사 상담료'와 '선임비'는 유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진용태 회장은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우리 지역민들이 좀 더 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서비스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도로표지판 들이받은 후 잠들어 광산경찰, 음주운전 20대 붙잡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은 후 잠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0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12시 50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1. 해광, 샹그릴라 APT
- 선암동, 공105㎡ 전82㎡
- 10층, 101동, 남향, 조망 좋음
- 즉시 입주가.
- 매매 – 4억 5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2. 신안동, 상업용지
- 대지582㎡, 알반 상업 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최고요지
- 매매 – 21억

3. 대인동, 상업용지
- 대지515㎡, 알반 상업 지역
- 롯데백화점 부근
- 매매 – 19억

4.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계 108㎡, 전 67㎡
- 내부깨끗, 창가쪽, 전망 좋음
- 매매 – 1억 1000만원 (토지와 교환가능)